

# 마주 달리던 기차 가운데 뛰어든 도법스님

## 멈춰선 기차...화쟁위 4년6개월 ‘큰울림’

### ‘화쟁의 길’ 대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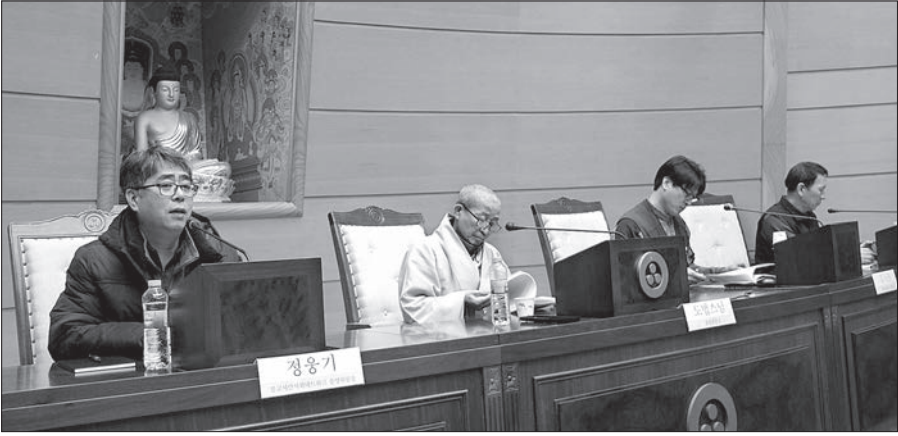
**#1** 2014년 10월, 밀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10개월 넘게 미뤄져 왔던 영결식이 보행됐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유한숙 씨의 장례였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3월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화쟁위원회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첨예한 갈등을 풀기 위해 화쟁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갈등해결센터와 함께 9차례 회의를 거쳤고, “아버지가 음독하신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유족의 뜻을 경영진에 전달했다. 결국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여 유족과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밀양송전탑 문제의 전반적인 중재는 아니었지만, 고인의 장례와 유족 지원 문제를 중재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2** 2013년 12월,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가던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했다. 철도파업으로 촉발된 갈등은 이후 심화됐고, 화쟁위원회는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철도문제, 대화로 풀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화해와 중재에 나섰다. 중재 노력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코레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마침내 조계사에서 노사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 “세월호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모순 규명”

북타로살자 월레모임서  
김왕근 위원 주제 발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는 세월호라는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디베이트(토론)를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



밀양송전탑 철도노조  
강정마을 평택쌍용차

현안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화쟁위에 많은 지지

**#3** 2012년 12월, 제주 강정포구에 마을 용왕대제'가 거행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공동체 복원'이라는 원칙을 갖고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강정마을을 20여 차례 방문했다. 찬반 양측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마을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4** 2011년,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평택 쌍용차 공장을 찾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화쟁위원회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갈등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경영진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화쟁위원회의 설득에 경영진도 태도를 바꿨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이후 종단 내 노동위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됐으며, 여야의 국정조사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설립 이후 지난 4년 6개월여의 시간은 화쟁위원회가 우리사회 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했던 시간이었다. 지난 10월 ‘화쟁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대중공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이같은 화쟁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정웅기 위원장은 밀양송전탑 음독주민 장례 진행, 철도문제 중재, 제주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문제 중재 등에 대해 “화쟁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화쟁위가 다른 의제들이 대부분 미완성으로 끝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화쟁위의 존재를 알게 됐고 많은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화쟁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화쟁의 길을 묻다’ 대중공사가 개최됐다. 사진은 대중공사에서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화쟁의 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

이어 △화쟁위의 역량 강화 △불교계 내부 문제의 화쟁적 해결 △각계각층과의 연대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며 ‘화쟁위원회는 도법스님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화쟁에 뜻을 둔 출·재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화쟁위원회가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재 노력을 해주셨다”며 “지난 11월13일 사측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로 쌍용차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태만 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2010년 설립된 화쟁위원회가 한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화쟁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같은 노력들이 더 쌓여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파업 당시 정치권도,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화쟁위원회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뒀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치와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자들이 지난 5일 터키 이스탄불 종교청을 찾아 라미아란 종교청장과 한국과 이슬람 종교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은 환담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 한국종교지도자 터키 종교체험

이스탄불 종교청 방문해  
이슬람 이해시간도 가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에페소 일대에서 ‘2014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종교간 교류의 장 확대와 이웃종교 이해를 모색하기 마련된 이번 순례에는 종지협 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등 22명이 참가했다. 종단 대표자들은 지난 5일 이스탄불 종교청을 방문해 종교청장인 그랜드 무프티 라미아란 이맘, 사브레 데비테 부청장 등을 만나 이슬람과 한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에는 50개 종교 500개 종파가 있

지만 7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고 특히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열려있는 터키를 방문해 순례와 문화체험을 진행하면서 종교간 평화와 상생을 기원하고 있다”고 종지협 성지순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라미아란 종교청장은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5번의 기도와 수입의 25% 나눔, 라마단 금식과 메카 성지 순례를 통해 종교적 신심을 다지고 도덕성을 높인다”며 이슬람 문화에 대해 설명한 뒤, “전 세계의 평화도 모든 개인 안에서 시작되며 모든 신앙이 자유의지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대표자들은 성소피아 성당과 술탄아메드흐자미,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건설된 기독교도들의 지하도시 카이막클르, 기독교 수행지인 괴레메 박물관 등 종교성지를 탐방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불교음악상 대상 덕신스님

공로상-이준형·연정연  
원력상-강주현·추현철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 수상자로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제2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수상자 덕신스님은 찬불가 노랫말 작사가이자 어린이 찬불동요와 부처님오신날 찬불가를 제작 보급하는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덕신스님은 오랜 기간 찬불가 작사와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매달 붓다콘서트를 열어 찬불가의 대중화에 매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불교음악상 공로상은 이준형 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과 연정연 바라오페라단 부

단장이 받게 됐다. 또 원력상은 강주현 E&I 앙상블 대표와 추현철 법륜사 마하합창단 지휘자가 차지했다. 불교음악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공로상은 상금 300만원, 원력상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불교음악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하는 불교음악상은 불교음악을 통한 불법 홍보와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한 불교음악인들을 격려하는 상이다. 지난 2012년 제1회를 시작으로 격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김하영 기자

2015학년도

전통과 미래를 열어가는 승가교육의 혁신도량

##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1학년(사미니과), 2학년(사집과), 3학년(사교과), 4학년(대교과)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② 주민등록증 및 승려증 사본 ③ 은사스님 추천서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⑤ 사진(3×4) 2매 ⑥ 건강진단서
- 도착일시 2015년 2월 7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
- 시험일시 2015년 2월 8일(음 12월 20일) 오전, 서류심사 및 면접
- 준 비 물 만의, 장삼, 승려증
- 동학사특화교육 요가, 사군자, 서예
- 특 전 입학금 면제, 전 학년 교재 제공

동 학 사 승 가 대 학 장 행 오 주 지 유 곡

##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② 승려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③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⑤ 수행이력서 ⑥ 건강진단서 ⑦ 사진(3×4) 2매
- 전형일시 2015년 2월 8일(음 12월 20일) 오후 2시
-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 특 전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매년 동문회 장학금 지급, 매월 연구비 지원, 종단 장학승 지원 자격

동 학 사 화 엄 승 가 대 학 원 장 일 초 주 지 유 곡